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 청신호

산림청 타당성 평가서 ‘적격’ 자연조건·식생·입지 등 호평 전남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

국립 난대수목원 완도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전남도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완도수목원은 지난 17일 실시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평가에서 ‘적격’ 평가를 받았다.

산림청 평가단은 완도수목원 본관, 산림박물관, 아열대온실을 거쳐 난대림으로 조성된 수관대크 전망대에서 완도수목원 현황과 기반시설 등을 둘러보고 자연조건, 식생, 입지 등을 살펴본 뒤 ‘적격’ 입지를 전남도에 통보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현장을 직접 방문, “완도는 전국 최대 난대림 자생지로 자생식물 770여 종, 동물 872여 종 등 난대림 생태계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로 완도가 최적지”라고 강조하는 등 공을 들였다.

국립 난대수목원은 산림청 기후대별 국립수목원 확충정책에 따라 난·아열대 산림 식물자원 연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반도 남부권에 조성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산림청은 현장 평가 70%, 서류-



전남 완도수목원이 최근 실시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타당성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국립난대수목원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완도수목원 내 설치된 아열대 온실.

발표평가 30%를 반영해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한 곳을 대상지로 선정하는데 완도의 경우 전국 최대 난대림 자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완도수목원 400ha를 후보지로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수목원은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국립수목원이다. 1991년 개원해 국내 유일의 난대수목원이자 최대의 난대림 자생지로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완도수목원은 2033ha 규모로 붉가시나무, 구실잣나무, 동백나무 등 자생식물 770여종을 비롯해 총 식물자원 4150종을 보유하고 있는 난대식물자원의 보고다. 산림자원의 60%를 차지하는 붉가시나무는 탄소 저장량과 흡수량이 가장 높아 최적의 기후변화 대응 수종으로 분석돼 그 가치가 더욱더 높다.

산림청은 적격 사업지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기본구상

용역을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1000억~2000억원 규모의 수목원을 조성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한반도 난대·아열대화 대응 연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적격 판정을 받은 만큼 국립난대수목원 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노신영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9세

외무부장관·안기부장·국무총리 등 5공 요직 역임

노신영(사진)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서울대병원 측 관계자는 “노 전 총리가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며 “속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평안남도 강서 태생으로 실학자인 노 전 총리는 서울대 법대 졸업 1년 전인 1953년 고시행정과에 합격, 1955년 외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80년 5공 정권이 들어서자 외무부 장관에 이어 국가안전기획부장(안기부장), 국무총리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탄탄대로를 걸었다. 1980년 8월 고시 출신 외교관으로는 처음으로 외무장관에 올랐으며 장관 시절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최대 규모의 양국 간 경제협상을 맡기도 했다.

안기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중국과 첫 공식 대화의 물꼬를 트게 한 중국 여객기 불시착 사건, 사할린 상공에서 발생한 소련기에 의한 대한항공기 격추사건, 아웅산 테러암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이후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 고문을 지냈으며 1994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노 전 총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표적 멘토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총 2년 3개월간 총리직을 수행, 이명박 정부의 기함식 국무총리(2년 4개월) 이전까지 최장수 총리 기록을 보유하고도 했다.

노 전 총리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10년 전인 2009년 4월 속환으로 별세했다. 고(故) 김 여사와 슬하에 3남 2녀를 뒀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5일이며, 장지는 대전 국립현충원이다. /연합뉴스

오늘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 심사

건강문제 쟁점될 듯...송경호 부장판사 심리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아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판가를 낸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지난 8월 27일 이후 두 달 간 진행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 교수 구속심사를 다시 맡을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심사는 송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7기), 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네 명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으로 영장

전담 판사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근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의 구속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 교수가 뇌졸중·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구속심사 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서 의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기준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액 제한이 곤란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개정안은 이날 하순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기존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다음달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홍보비 등 추가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31억28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이총리 통해 아베에 친서 전달

한일협력 중요성·관계 개선 의지 담긴 듯...일왕에도 친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전달한다고 총리실이 공식 확인했다.

이석우 총리실 공보실장은 22일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이 총리는 아베 총리를 면담할 때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가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24일 아베 총리와 ‘10분+α’ 가량 면담을 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권 배상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1년 가까이 갈등을 거듭하며 한일 정상 간 대화가 불발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가 이런 흐름에 변곡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친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일 협력의 중요성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추후 한일 정상회담 등 정상 간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포함됐을지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즉위식을 치른 나루히토(德二) 일왕에게도 외교 통로를 통해 친서를 전달했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일왕에게 보낸 친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즉위식에는 이 총리와 남관표 주일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도쿄 지요다구 소재 고쿄의 규전(궁전)에서 자신이 일본 헌법과 ‘황실전범’ 특별법 등에 따라 왕위를 계승했다며 “즉위를 내외에 선명(선언해 밝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주요 인사와 이낙연 총리 등 일 180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쿠이레이세 이텐노기’에서 이처럼 즉위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즉위는 올해 5월 1일 이뤄졌으나 이를 일본 인파에 알리는 의식을 따로 연 것이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땅 891㎡ 주택·창고 137㎡ 전량 총액 2억5천
- 곡성군 옥곡면 수리 계획관리지역 전 9504㎡ 투자에 총액 1억9천
- 무안군 창계면 도림리 목포대항 건너편 680㎡ 전원생활적합 4천만원
- 총남 대안군 안면면 정당리 땅 1749㎡ 교환 2억 현금 매도는 조정 가능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농장 적합 하순군 동면 대포리 10959㎡ 전원생활에 총액 2억8천
- 무안 몽탄면 영산강변 48900㎡ 펜스 14개 등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8억
- 광천파출소 건너편 준주거 1259㎡ 병원 등 다용도 76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담) 8232㎡ 주위조경총액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담터)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풍수상 가장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됨 8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양 총액 1억3천

상가건물

- 운암동 아파트 단지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아파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옥 적합 15억천
- 운암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6㎡ 매입 2억 창고·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신축 원룸 관산구 도천동 땅 226㎡ 건물 381㎡ 안집 있고 원룸 11개 9억5천
- 유동 신축카피상 대지 73㎡ 2층건물 30명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 교환 3억6천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월 510 매도 14억
- 북구 임동 모델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동구 산수동5거리 대로점 준주거 1249㎡ 병원·주상복합 적합 법인이전 49억
- 강진군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사단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5억
- 오양시설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 가능 은행 4억 매도 교환 8억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2019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는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항우회원 자녀 중에서 애학심이 투철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특기 및 학업 성적 등 미래의 비전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 지원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 영광군항우회 회원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2018년 10월 1일 현재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모를 둔 학생
 - ◆ 선발인원
 - 총 20명으로 하되, 영광군민 자녀 12명, 재광영광군항우 자녀 8명(예정)
- 2 선발방법 및 구비서류
 - ◆ 선발방법
 - 영광군민의 자녀 중 영광군수가 추천한 학생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
 - 재광영광군항우 자녀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 장학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학생
 - ◆ 구비서류
 - ①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 ② 공적 조서(해당 분야 자료 사본 첨부)
 -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④ 재학증명서 1부
 - ⑤ 성적증명서 1부
 - ⑥ 통장 사본(본인 명의)
 - ⑦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⑧ 글쓰기 작품 1점 : 수필, 자필시, 생활문(장학생에 선발된다면) 등 형식,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제출
- 3 서류접수 및 선발예정
 - ◆ 서류 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우 61903) 광주광역시 서구 유림로 100 (동천동 해천빌딩 7층)
 - 전화 : (062) 522-8422/사무국장 김성수 010-4622-2337 (이메일 kss237@nmail.net)
 - ◆ 선발 일정
 - 접수 기간 : 2019년 11월 1일(금)~11월 20일(수) 17:00까지
 - 최종 선발 : 2019년 12월 초순 발표
 -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카페 및 개별 통보)
 -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식 : 2019년 12월, 재광영광군항우회 송년의 날(12월말) 예정
 - ◆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제출하고, 재광영광군항우의 자녀는 이형만영광군항우 장학회 사무국 사무실로 제출

영광군청 추천 :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회원 구비 서류는 공통)
* 구비서류양식 :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카페 http://cafe.daum.net/ihmygg 참고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